“종교·국적 넘어 인류 헌신, 감사드려”

제22회 만해대상 시상식… 평화대상 대만 자제공덕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만해대상 제22회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제)는 8월 12일 오후 2시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2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만해축전조직위원회 총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명예대회장인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최상기 인제군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봉사, 자선,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대만 불교 민간 구호단체 ‘자제공덕회’가 받았다.

만해실천대상은 6만 명이 넘는 버려진 아이들의 주치의로 활동한 조병국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 명예원장이, 만해문예대상은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와 브루스 풀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상했다.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만해대상’은 ‘대한민국의 노벨상’이라 불릴 만큼 저명한 상”이라며 “만해대상 수상자들은 국적과 종교, 성별과 나이에 구분없이 인류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말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구호단체 ‘자제공덕회’의 설립자 증엄 스님을 대신해 수상한 덕랑 스님은 “이 상은 국내와 해외에서 묵묵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

12일 인제 하늘내린센터서
실천대상 조병국 명예원장
문예대상 최승범, 풀턴 교수

는 모든 자제인들의 영광”이라며 “부처님의 큰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광명이 인간세상을 고루 비추길 축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조병국 명예원장은 “6·25 피난길에 널브러져 있던 어린 아이들을 보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 영광을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말리 홀트 여사와 홀트재단의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최승범 명예교수는 “생각지 못한 상을 받아 큰 영광이며 남은 여생도 이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브루스 풀턴 교수는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번역에 힘써온 제가 이번 상을 받게 돼 기쁘다. 오늘 수상의 영광은 한국문학의 훌륭한 모든 작가분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8월 12일 강원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는 제22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자제공덕회 덕랑 스님, 조병국 명예 원장, 최승범 명예교수, 브루스 풀턴 교수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만해대상 시상식과 함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 혼을 기리는 ‘2018 만해축전’도 ‘화합·전진‘을 주제로 지난 8월 11일~14일까지 동국대 만해마을과 인제 하늘내린센터, 인제실내체육관 등 인제군 일원에서 진행됐다.

만해축전 첫날인 11일에는 만해마을 만해학교 세미나실에서 ‘이념의 벽을 넘어, 만해사상과 신간회’를 주제로 만해연구소 학술세미나가 개최됐으며, 만해마을 님의침묵 광장에서는 제16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열렸다. 유심작품상에는 시부문 고형렬 시인, 시조부문 박방희 시인, 학술부문 송준영 시인, 특별무문 천양희 시인이 각각 선정됐다.

12일에는 평화시 낭송회 등의 행사가 진행됐으며, 13일에는 님의침묵 전국 고교 백일장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렸다. 국내 최고 규모인 고교 백일장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전국 4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백일장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최진아(유봉여고 3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문체부장관상은 시 부문 권용은(영등포여고 3학년), 산문 부문 신승희(여의도여고 3학년), 시조 부문 김민경(반송고 3학년)이 각각 받았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⑬

진말숙 불교호스피스협회 봉사자

“봉사 받는 기분으로 호스피스해요”



호스피스 세미나에 참석한 진말숙 봉사자(사진 왼쪽 첫번째)와 도반들.

사람은 살다보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기 전 잠시나마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부분 인생의 정리작업이 쉽지가 않다.

불교호스피스협회 진말숙 봉사자는 말기 암환자들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다.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그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12년 전 울산 정토마을에서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이후로 그녀는 울산대 9병동 봉사팀에서 매일 봉사를 하고 있다.

“항상 ‘봉사 해보고 싶다’는 문장이 마음 깊숙이 있었어요. 마침 정토마을 불교호스피스 교육이 있는 것을 알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봉사 때는 울산대까지 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봉사하러 가야 하나 했지요. 그런데 봉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봉사를 해보지 않은 이들은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스로의 삶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 봉사이고, 오히려 봉사를 받는 기분이라고 말이다.

“처음 봉사라는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시작했는데, 한 중년 남자 환자를 만났습니다. 시골 동네의 이장도 하시고 왕성한 시기에 찾아온 암이 야속하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가 병원생활에 집안일이 밀려 저에게 환자를 맡기고 가족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이 마음을 열지 않아 힘들어 했지만 점차 마음을 여셨어요.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죠.”

그녀는 한 달이 지날 때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누구세요?”

“아 예, 누구 누구의 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못알아봐서요,”

“아닙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일다 치르고 생각이 나서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오히려 미안한 감정이 솟구쳤다는 그녀는 이때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한다고 했다.

그녀는 호스피스 활동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 가족 삶의 질도 함께 높이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 나이가 이제 70세입니다. 조금씩 저도 아픈 곳이 생기고 있지요.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제가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군종교구, 평화의 불 호국충의사에 밝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8월 12일 안양 수도군단 호국충의사에 평화의 불을 밝혔다.

군종교구는 군부대 방문 때마다 평화의 초를 전달해 군장병들의 신행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평화의 초에 발원문을 쓰는 행사도 마련됐다.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은 “무더위에도 국토방위에 임하는 장병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평화의 불을 밝히고 일요일 법회를 볼 수 있다”고 격려했다.

수도군단 부단장 오원진 소장은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는 것은 군인들일 것”이라며 “봉안한 평화의 불이 모든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부처님께 봉안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한 걸음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한 연애 위한 소통법 배워요”

조계종복지재단, 8월 5일 익산서 육군 장병 대상 바른 관계형성 교육 진행

조계종복지재단이 육군 장병들의 원만한 연애와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올바른 소통과 관계형성 교육 ‘혼자는 편하고 둘은 즐겁다’를 8월 5일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 일요법회서 진행했다. 이날 평균 21세의 육군 장병들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운영 중인 복지재단은 “올바른 연애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상대를 대한 관심과 소통서 시작된다”


평균 21세의 육군 장병들이 ‘혼자는 편하고 둘은 즐겁다’ 강의를 듣는 모습.

며 “건강한 만남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혼자는 편하고 둘은 즐겁다’ 교육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말했다.

이재목 연애컨설턴트(참한기획)는 △적극적이지만 과하지 않은 대화법 △상대방을 탓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소통법 △단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태도 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전교육을 강의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강의가 끝난 뒤 “연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복지재단은 9월에도 이와 관련한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솔직하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시대인 만큼, 직설적·이기적 대화방법이 아닌 배려와 존중,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군대생활서도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는 마음으로 보다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